

코스타리카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9

코스타리카

I. 일반개황

면적	51천 km ²	G D P	221억 달러(2006년)
인구	4.40백만 명(2006년)	1 인 당 GDP	5,033달러(2006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Colon(C)
대외정책	실리주의 경제외교	환율(달러당)	511.30(2006년)

- 코스타리카는 북으로는 니카라과, 남으로는 파나마와 접경하고 있고, 메스티조 및 스페인계 백인이 총 인구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1인당 GDP 5,033 달러의 중소득국임.
- 1949년 이후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중립국을 선포하여 대외적 안정화를 꾀하는 등 중미국가 중에서는 정치상황이 가장 안정된 나라임. 바나나, 커피, 설탕 등 농산자원이 풍부하며, 최근에는 활발한 마케팅 활동, 항로 증편 및 숙박시설 개선에 따른 관광산업 부흥으로 지속적인 외화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97년 이후 동국을 중남미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의거, Intel社를 비롯한 10여개의 외국계 하이테크 제조업체들이 코스타리카에 지사를 설립하여 반도체 등 전자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제성장률	2.9	6.4	4.3	5.9	7.9
재정수지 / GDP	-4.0	-3.1	-2.6	-2.0	-0.7
소비자물가상승률	9.2	9.5	12.3	13.8	11.5

자료 : IFS, EIU

□ 고도성장세 지속

- 1990년대 중반 미국 Intel사의 투자유치를 계기로 고도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2000년 이후 세계 IT 산업 불황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됨.
- 2002년 이후 대미수출 증가와 국영전력통신회사(ICE)의 투자 증가로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3~04년에는 6.4%와 4.3%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함.
- 2005~06년에도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의 투자 활성화, 주택 건축 붐과 민간소비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각각 5.9%와 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 하이테크 산업과 관광산업의 호조로 경제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률은 5% 내외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물가는 하향안정세로 전환

- 물가는 최근 수년간 10% 내외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2004~05년에는 고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각각 12.3%와 13.8%

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6년에는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1.5%로 낮아졌고, 연말 물가상승률은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9.4%를 기록함. 이는 2006년 10월 중앙은행(BCCR)이 환율제도를 크롤링페그제에서 크롤링밴드제로 전환하는 한편, 통화 공급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위축된 결과이며, 2007년 물가상승률은 9%대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 재정수지 개선 추세

- 공공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중하여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다소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에는 세수가 전년대비 24% 증가한 반면 세출은 18.5% 증가에 그쳐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0.7%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음.
- 그러나 2007년에는 정부의 공공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가 다시 GDP의 1.8%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한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기존 면세품목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소득세율을 일괄 조정하는 등 조세 징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몇 년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제조업 기반 미약 및 외부의존적 경제구조

- 코스타리카 경제는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큰 편임. 주요 수출품목은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등으로 1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제가격변동과 기후 조건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석유수입국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주요 교역 대상국은 미국으로, 2005년 전체 수출의 38.6%, 수입의 39.3%를 차지하는 등 전체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미국 경제의 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음.

□ DR-CAFTA 비준 지연 전망

- 코스타리카는 DR-CAFTA에 대한 의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며, 아리아스 정부는 DR-CAFTA 비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현재 여당이 의회의 과반석에 미달하고 있으며, 2007년 9월 23일 DR-CAFTA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조만간 비준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각종 개혁 정책 추진에 난항

- 정부는 주요 경제현안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조세 징수기반을 확충하는 세계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몇 년째 의결이 지연되고 있음.
- 2006년 2월 일부 면세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및 소득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안이 1차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이후 2월 20일로 예정되었던 두번째 심의가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 연기됨에 따라 재정개혁안 도입이 계속 늦춰지고 있음.
- GDP의 50%를 차지하는 공공부채 감소를 위해 필수적인 재정개혁안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아리아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4개년 개발계획의 추진 또한 지연될 전망이다.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 상 수 지	-857	-880	-796	-971	-1,118
경 상 수 지 / G D P	-5.1	-5.0	-4.3	-4.8	-4.9
상 품 수 지	-1,278	-1,089	-1,421	-2,142	-2,743
수 출	5,270	6,163	6,370	7,100	8,068
수 입	6,548	7,252	7,791	9,242	10,811
외 환 보 유 액	1,474	1,809	1,891	2,284	3,084
총 외 채 잔 액	4,824	5,421	5,738	6,123	6,451
총 외 채 잔 액 / G D P	28.7	31.0	30.9	30.6	29.1
D . S . R .	8.9	9.8	7.9	5.9	5.4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소비재와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상품수지가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동국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Intel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06년에도 관광산업의 호황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및 외채이자와 배당 지급 부담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 지속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4.9%인 10.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외채상황은 양호

- 장기저리의 외채조달을 통해 국내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채무재조정 정책 추진(2000년부터 5년 동안 총 14.5억 달러의 글로벌 본드 발행)으로 총외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외채비중은 30%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6년 말 총외채규모는 GDP의 29.6%인 64.5억 달러이며, DSR은 5.4%로 외채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경제무국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민주헌정이 확고히 정착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민주 헌정이 확고히 정착되어 있는 가장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임. 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으며, 여타 중미 국가들과 달리 군부 쿠데타나 노동자들의 시위로 인해 대통령이 중도하차한 적이 없는 등 정치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임.
- 코스타리카 헌법은 민주정치제도의 최대 위협인 권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속 재선 불가, 선거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경찰권 부여를 통한 공명선거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군대의 민주 헌정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1949년 군대를 폐지하였음.

□ 아리아스 정부 출범

- 2006년 2월 실시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해방당(PLN)의 아리아스(Arias) 후보가 시민행동당(PAC)의 솔리스(Solis) 후보를 1% 포인트의 적은 표차로 승리하였음.
- 아리아스 대통령은 1986-90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1987년에는 중미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DR-CAFTA에 찬성하는 입장임.

□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정운영 난항

-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 아리아스 대통령의 PLN당이 총 57석 중 25석을 차지하여 의회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석 확보에는 실패(야당인 PLN 25석, PAC 17석, PUSC 5석 등)하여 DR-CAFTA 비준, 재정 개혁 등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

- 전통적으로 대미우호, 평화선린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미주기구 중심으로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음. 중미통합체제(SICA)에 참여하고 있으며, 카리브해 연안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주변 국가들과의 통합관계 강화에 힘쓰면서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사회 안정성은 양호

- 중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사회복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평등한 사회구조와 높은 교육수준으로 사회체제는 안정되어 있음.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범죄발생률이 극히 낮으며, 실업률도 수년째 6%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국제신용평가기관 평가순위

- 코스타리카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대체로 양호함. 정부의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안정된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으나,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지속 등으로 인해 BB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o OECD	: 3등급 ('05. 6) → 3등급 ('06. 6)
o Moody's	: Ba1('97.5)
o S&P	: BB('97.7)
o Fitch	: BB('00.9)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ECGD 등 주요 ECA의 동국에 대한 지원 방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o US Exim : 최고부보율 적용
 - o ECGD : 최고부보율 적용
 - o Hermes : 단기거래 최고부보율 적용

3. 외채상환실적

□ 총외채 규모 증가 추세이나 GDP 대비 규모는 안정적

- 동국은 1980년대 초 제2차 오일충격과 국제고금리로 촉발된 외채위기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0년에 브래디 플랜에 의거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였고 1991년과 1995년 2차례에 걸쳐 파리클럽과 국제기구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음.
- 장기저리의 외채조달을 통해 내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채무재조정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5년동안 총 14.5억 달러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기로 의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총외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GNI 대비 외채비중은 30%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4년 초 214백만 달러의 브래디 채권을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 실적도 비교적 양호함.

□ 외환보유액 증가, 낮은 DSR 수준 등 외채상환 문제는 없을 듯

- 2006년말 현재 총외채는 GDP의 30%인 64억 달러 규모이며,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6년 말 외환보유액은 전년 동월 대비 34.7% 증가한 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D.S.R도 5.3%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V. 종합 의견

- 코스타리카 경제는 2003년 이후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만성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문제에 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외국인 직접투자의 꾸준한 유입 등으로 비교적 건실하게 경제 운영을 하고 있음.
- 2006년 실시된 대선 및 총선에서 아리아스 후보가 근소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향후 DR-CAFTA 비준, 재정 개혁 등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이 확고하고 국내외의 정치, 사회적 안정성도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외채조달을 통해 내채를 축소하려는 국가채무재조정정책 추진으로 총 외채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GDP대비 외채 비중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C1급으로 평가됨.